대학 4년간 전과목 A+ 받은 **신원문**

"제 만점졸업 비법이요?"

지난 2월, 국내 주요 일간지는 성균관대학교의 2011학년도 졸업식 소식을 상세히 보도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경제학과 2005학번 신원문 씨, 그는 개교 이래 최초로 전 과목에서 A+를 받아 만점졸업의 영예를 안았다. 규칙적인 생활에, 매사에 절대 두루뭉술하게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워 임하느라 친구들에게 '사이보그'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는 그의 공부법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글 | **신원문** 사진 | **김성훈** 기자 디자인 | **김현정** 기자

많은 대학생들, 특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신입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대학생활에서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시간표 따라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공부만 하면 되는 고등학교와 달리, 대학은 시간이 많은데다 신청한 수업에 따라 등하교 시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에는 너무도 막막하고 당황스러워 '내가 어딘가에 내버려진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였어요.

이때는 '얼마나 빨리 고등학교 때의 틀을 버리고 대학의 수업 및 생활 스타일에 적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시키는 대로만 공부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내가 찾아가며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바꿨어요. 교과서 외에 배경지식을 풍부하게 해 주는 책을 많이 읽었고,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가령 심리학 시간에 들은 심리테스트) 들을 친구들에게 써먹거나 실생활에 적용시키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빠른 정보습득은 기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빠른 정보습득'인데, 의외로 이 점을 간과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고3 수험생이 수능을 대비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방대한 분량의 언어, 수리탐구, 사회탐구 등을 무턱대고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런 형태와 난이도로 출제되는구나'를 파악하는 거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는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해야 하는 거죠.

그러려면 친구나 선배 등 인맥을 잘 구축해두는 것이 좋아요. 물론 혼자 공부하고 대학생활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수업이나 교수님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맥은 필요해요. 특히 신입생이라면 당연히 선배들로부터 '이러이러한 식으로 시험이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준비하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지요. 학교 커뮤니티도 훌륭한 정보원입니다. 게시판을 통해 교수님의 수업방식, 교재, 출제유형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수강 신청 3+1의 대원칙

저희 학교는 학생 수에 비해 개설된 과목 수가 적어 수강신청이 전쟁을 방불케 할 정도였어요. 희망과목을 입력하기 전에 정원이 차는 것을 대비해 2안, 3안을 준비해 두는 건 기본이죠.

저의 수강신청 대원칙은 크게 세 가지였어요. 첫째,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수강신청을 마치고 시간표를 출력해 보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예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요. '월화수목 연속해서 오후 3~6시에 수업을 몰아서 듣자' '난 오전 9시 수업이 싫으니까, 1교시는 모두 빼버려야지' 하는 식으로 짰을 때죠. 그런데 자신이 듣고 싶은 수업이나 유익한 수업이 있으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학교에 가야 한다는 거죠.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교양수업은 강의실이 서로 멀리 떨어진 경우가 있어요. 이동시간은 고려해야겠지만, 내게 필요한 수업이라면 거리가 멀더라도 심지어는 타 대학 수업이라도 가서 청강할 수 있는 열성이 필요하죠.

둘째, 위의 첫째 원칙을 지키되 시험일정은 고려해야 한다는 점! 시험이 하루에 4개나 몰리도록 시간표를 짜면 위험하겠죠? 시험이 월요일 3개, 수요일 1개 있다면 어떨까요? 주말에 3과목을 최종정리하고, 수요일 과목은 화요일에 정리한 뒤 시험을 보면 되겠죠?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판단해서 시간표를 짜면 좋겠습니다.

셋째, 그 수업의 평가방식입니다. 어떤 수업은 조별과제나 발표가 성적에 직결되는 것이 있어요. 레포트만 제출하는 수업이 있는가 하면, 시험으로만 평가하되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는 수업도 있어요. 너무 듣고 싶은 수업인데 평가방식이 나와 맞지 않는다면, 저울질을 해 봐야겠죠?

이 3가지 원칙에 하나 더, 수강계획을 4학년 것까지 미리 짜 놓으시길 권합니다. 전공과목은 1학기 개설 과목, 2학기 개설 과목, 3(4)학년 때 듣는 과목 등 종류와 성격이 다양합니다. 특히 군대에 다녀와야 하는 남학생이라면 적어도 2학년 때부터는 졸업 때까지 몇 학점을 들을 것인지를 계획해 보고, 과목별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미리 인지하고 수강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좋습니다. '4학년 때는 취업준비에 매달려야 하니까 3학년 때 빡빡하게 듣자'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에 옮긴다면 알찬 대학생활을 하는 데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예습만 철저히 하면 시험이 임박해도 두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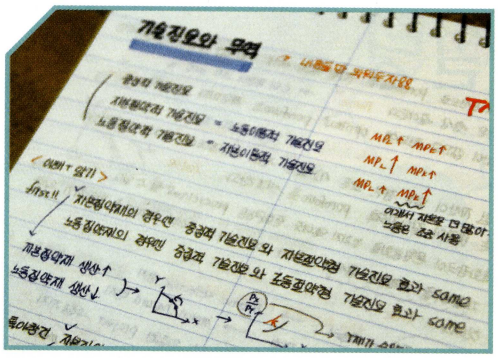
예습이 중요하냐, 복습이 중요하냐에 대해서는 저마다 의견이 다른데요. 저는 예습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습은 시험기간에 하면 되니까요. 그날 수업시간에 배울 것은 반드시 그날 예습을 하되, 모든 내용을 외우고 이해할 정도로 예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업 범위에 맞춰 강의안을 미리 훑어보고 내가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것을 체크해 보거나, 교재의 한 장chapter을 미리 읽어보고 '이번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배우는구나. 이건 재미있을 것 같다. 저건 어려워 보이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실까?'를 생각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수업 30분 전에 강의실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에는 교수님의 강의에 집중합니다. 한 번 봐 둔 내용이라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밑그림이 잡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떻게 노트정리를 할 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힐 것입니다. 예습을 하고 수업까지 들었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수업이 끝나고 개인적으로 교수님을 찾아가 여쭤보면 됩니다. 수업이해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교수님께 좋은 인상도 심어주는 원샷투킬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 내용은 한 번 공부해서 뇌리에 남아 있고, 이해도 해 봤다'는 경험을 쌓는 정도로 예습을 하다가 시험이 임박하면 밀도 있게 복습을 합니다. 제 경우 시험 준비기간을 평균 2주로 잡았는데요. '월요일은 무슨 과목, 수요일은 무슨 과목' 하는 식으로 시험일정이 나오면 시험공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0월 시험계획 (예)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미시경제학〉	17 〈경제사〉	18	19 〈외환시장론〉	20 〈회계원리〉	21
22	23	24	25	26	27	28



시험공부 계획은 '무슨 과목을, 어떤 순서로 공부하느냐?'가 핵심인데요. 저는 역산逆算, 즉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썼습니다. 가령 달력대로 월요일에 〈미시경제학〉, 화요일에 〈경제사〉 시험을 친다고 하면, '16일 월요일이 〈미시경제학〉 시험이니까, 그 전날인 일요일 최종복습을 하면 되겠구나. 〈경제사〉는 그 다음날인 화요일이라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외울 게 유난히 많은 과목이니까 그보다 하루 반 정도 앞인 13일에 미리 공부해 둬야겠다' '15일 일요일에 〈미시경제학〉을 최종복습하려면 그보다 일주일 전인 8일쯤에 1회독을 끝내두면 기억이 남아있을 거야.' 하고 퍼즐을 짜맞추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전체적인 시험공부 계획이 완성됩니다. 외울 것이 많은 과목, 이해력을 바탕으로 하는 과목, 평소 실력으로도 얼마든지 칠 수 있는 과목 등도 한눈에 들어오지요.

시험공부 계획이 수립되면 중요한 것은 실천인데요. 저는 하루 공부할 수 있는 최대분량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오늘은 〈경제사〉 1~5장chapter을 모두 보겠다' 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실천하는 대로 하나하나 지워나갔지요. 대개 그 공부분량을 채우지 못할 때가 많은데, 어쩌다 그 최대치보다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가령 1개 장을 마치는 데 1시간이 걸린다면, 5개 장을 마치려면 5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런데 제1장은 1시간에 마쳤는데 제2장은 45분 만에 마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 빨리 마쳤네? 그럼 조금만 쉴까? 하지만 3장은 시간이 더 걸릴지도 모르는데' 하는 식으로 여유도 찾고 끊임없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하다 보면 성취감도 생기고 재미도 붙지요. 시험이니까 어쩔 수 없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계획을 세우고 성취해 가면서 만족도 찾는다면 훨씬 쉽게 공부하면서 시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A+ 수강생을 결정짓는 마지막 2%

시험공부를 할 때 가장 집중이 잘되는 때는 바로 시험 전날입니다. 평소 예습하고 수업을 들으며 한 번 공부하고, 시험 1~2주 전에 한 번 훑어보고, 시험 전날 집중력을 발휘해 공부하고, 이렇게 3번 정도 보면 방대한 분량도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시험 1~2주 전에 공부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시험 전날 외울 건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맨땅에 헤딩하기' 식 벼락치기입니다. 1~2주 전에 훑어두지 않으면 시험 전날 공부해도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준비된 벼락치기'인 셈이죠.

마지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시험을 준비하면 남들보다 조금 잘 볼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잘 볼 수는 없어요. 기출문제, 예상문제를 파악하고 공부하되, 거기에 '예상을 깨고 여기서도 출제될 수 있을 거야' 하고 한 수를 더 생각하고 준비해 둔다면 차별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은 카르페 디엠Carpe Diem,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는 것도 좋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뻔하고 쉬운 말처럼 들리겠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쌓여서 대학생활이 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Go, Go!

글쓴이 **신원문**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재직 중.
재학 시절 뛰어난 학업성적 외에도 동아리 '다산금융반'에서 활동하며 다수의 논문공모전에서 수상하는 등 두드러진 대외활동으로도 많은 화제가 되었다.

신원문의
공부 고민 컨설팅

Q "시험공부를 할 때면 '도대체 왜 이걸 공부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시험을 치고 나면 잊어버릴 내용들을 단지 점수를 얻으려고 암기 테스트를 한다는 마음이 들거든요." (장은영, 한세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A 요즘같이 인터넷으로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대에 금방 잊어버릴 내용들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며 공부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보를 검색하는 일도 (시험 때문에 억지로나마)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자료를 찾는 것과,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내용을 찾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했던 지식들은 희미하게나마 머릿속에 흔적과 잔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슷한 분야의 자료를 찾을 일이 생기면 '아, 그거 어디서 봤던 건데. 맞아, 이 책에 있었어!' 하고 훨씬 쉽고 빠르게 필요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귀담아 들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법입니다.

Q "고학년 선배들이 많이 듣는 수업은 좋은 점수 받기가 쉽지 않아요. 선배들은 아무래도 학교생활도 오래하고 경험도 많다 보니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노하우를 많이 알고 있거든요." (최성실, 홍익대 국제경영학과 2학년)

A 저는 그건 편견이라고 봐요. 복학생이나 선배들은 졸업학점이나 취업 등 신경 쓸 게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후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본 경험도 적은 편이고요. 반면에 후배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해 온 관성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제 경우 1학년 때도 고학년 선배들이 많이 듣는 과목을 굳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평가의 장점이나 단점은 '상대평가'라는 점입니다. 굳이 1등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비율 안에만 들면 A+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제대로 공부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남들이 잘하니까난 못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절반은 지고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A 그런 자리에 불려나가는 게 싫은데도 가는 것은 선배나 친구에게 찍히기(?) 싫어서일 거예요. 하지만 '안 나가면 나중에 내가 원할 때 같이 안 놀아주겠지…' 하는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끝도 없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 주변에는 저를 좋아해 주는, 소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친구들이 '원문이는 자기 목표에 충실한 친구니까 밤늦게까지 놀지는 않지만 일단 어울리면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도 많이 해준다. 같이 있다 보면 뭔가 얻는 게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신만의 장점으로 흡인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또 하나, 친구와 어울려 노느라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소홀히 한다면 그게 서로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까요? 자기 나름의 경계선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A 예습을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좀 의외라구요? 설명해 드릴게요. 가령 어떤 수업에 대한 몰입도를 100%라고 한다면, 수업 내용에만 100% 몰입하는 사람도 있고, 수업내용 자체에는 70% 정도 몰입하고 주변사람과 잡담하는 데 10%, 교수님의 강의스타일을 살피는 데 20% 몰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습을 통해 미리 그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수업에 들어가면 수업 분위기나 교수님의 스타일 등을 살피는 심적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교수님은 저런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식으로요. 가르쳐 준대로 답안을 작성하는 걸 선호하시느냐, 추가적인 답변을 쓰는 걸 선호하시느냐의 문제도 결국 교수님의 성향을 파악하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Q "시험 때면 선배나 친구들이 술자리에 불러내 미칠 지경입니다. 1학년 1학기 때는 평점이 1.8이 나올 정도였고, 이후 두 학기 평점까지 합쳐도 2점을 약간 넘는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선배나 친구관계를 소홀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OOO, S대 사회학과 2학년)

Q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달라 힘들어요. 수업 때 들은 대로 답안을 작성했더니 '창의적이지 않고 주관이 없다'며 점수를 깎는 분도 있고, 제 의견을 가미해 답을 썼더니 '가르쳐 주지 않은 내용을 썼다'라며 안 좋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상엽, 서강대 수학과 4학년)